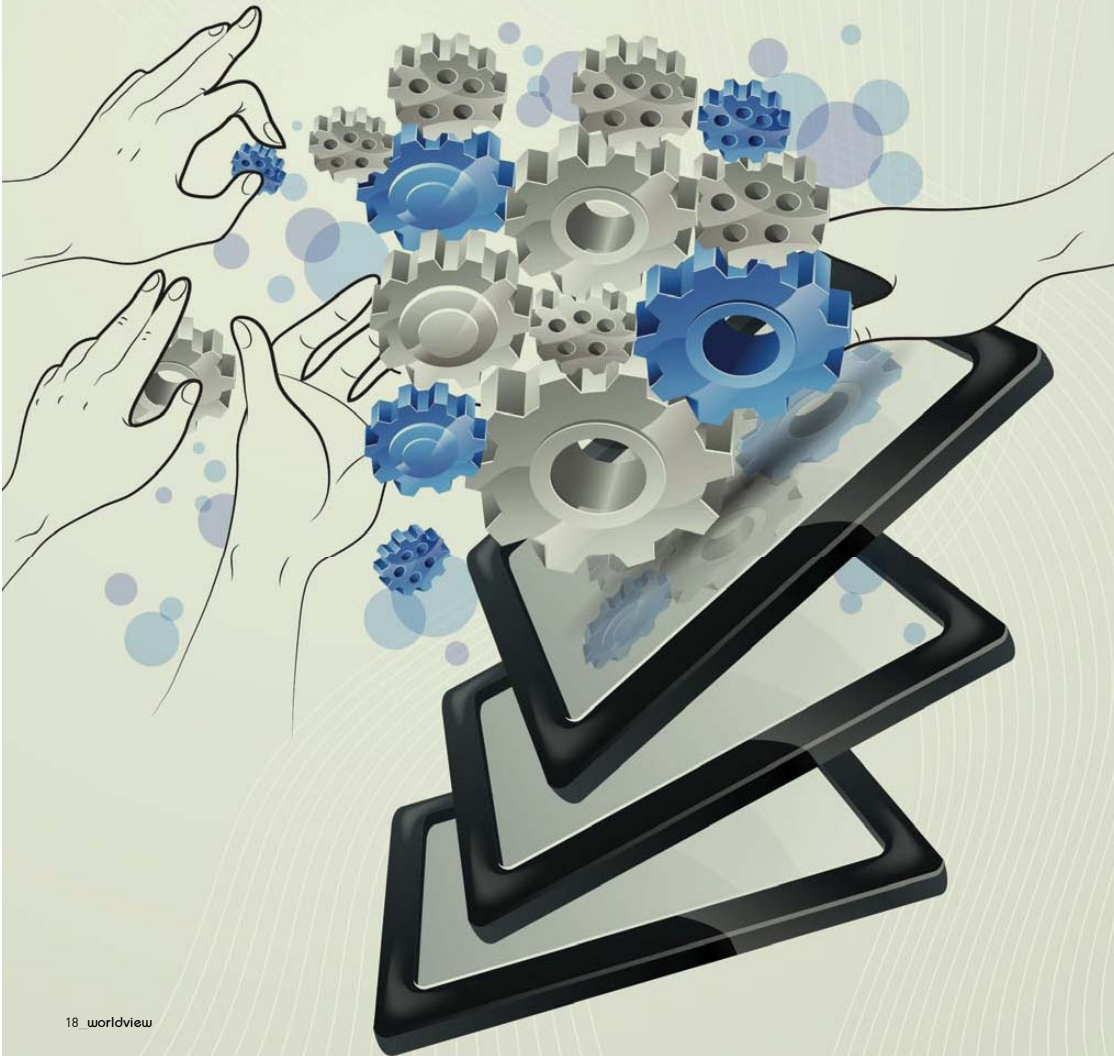


디지털 혁명과 시간, 몸

양성만 (우석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원 철학분과장)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후 신제품 발표회는 일종의 축제가 되었다. 그가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발표장에는 수십 개 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 그가 내미는 은물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의 프리젠테이션에 숨을 죽였다. 그 전일부터 와서 밤샘을 하는 것은 무슨 종교의 식이나 된 것 같았다. 잡스가 자기 제품 속에 담아 내놓는 것은 신기술에 그치지 않고 새 시대의 영성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신기술과 첨단제품에 대한 관심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장년층에게까지 퍼졌다. 그만큼 디지털 혁명의 위력은 메가톤급이다.

사람은 자기 밖의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얻는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시각과 청각일 터인데, 현대의 전자기기는 이 아날로그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놓았다. 시각에서 이루어진 처음 시도는 흑백의 성긴 점들의 집합들로 실물을 상기시키는 기호 수준이었지만 급속한 개발의 결과 지금은 사람의 망막의 능력으로 볼 때 실물을 직접 보는 것이나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잡스는 아이폰 4의 디스플레이에 '망막(레티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청각에서도 같은 일이 실현되었다. 인간은 20Hz와 20,000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리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CD로 제작할 때는 1초 동안의 소리를 44,100개의 신호로 바꾸어 표현한다. 그러면 약 2만 Hz의 음파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보다 진동수가 높은 소리는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없으니 결국 CD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화한 후 이것을 현대 기술은 고속망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정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보자면 결국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 판단, 의사 결정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체계를 이뤄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디지털 혁명을 통해 이런 정보 획득과 교환이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보 처리가 얼마 전까지는 컴퓨터라는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든 몸 곁에 두고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 이메일 확인하고 답장, 뉴스 검색, 출근할 때 내비게이션 앱 이용, 고속버스 및 기차표 예매, 노트 어플을 통한 메모 관리, 캘린더를 통한 일정 관리, 녹음하고 사진 촬영 및 전송하기 등등.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더 빨라지



고, 더 예민해지고, 더 똑똑해져서 나중에는 사람의 정신활동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모르겠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몸이 지구상

의 어느 한 곳에 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이 이런 정보망을 통해 우리 정신의 내용 전체가 빛의 속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실질적으로 공간상의 제한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미래의 사회를 그런 세계로 그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환영하고 즐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존재를 특징짓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 '만물의 영장'이니, '이성적 존재'니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런 개념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적 존재'라는 개념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은 '시간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라는 개념쌍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11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직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분열되어 사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열되어 있지 않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분은 모든 시간에 걸쳐 동일하며, 불변하고, 그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로 주어진다. 따라서 혹시 사람 중의 과거사를 모두 알고, 현재 사실을 모두 알고, 미래사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앞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그분에게는 모든 진리가 현재의 직관의 대상으로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진리는 그분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니 그분이야말로 진리 자체이다. 물론 어거스틴은 시간 속에서 분열되어 사는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삶으로 초대된 사실을 인간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존재 방식이 시간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고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밥 먹고 사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밥 안 먹고 살 수 없다. 그것도 매일 먹어야 한다. 우리 몸은 한 달 치를 한꺼번에 먹고 한 달을 지낼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다. 그렇게 매일, 매 끼니 먹는 밥이 우리 몸 안에 쌓여서 사람은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란다. 그러니 해와 달은 우리 삶의 시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분절하고 그 분절된 시간 속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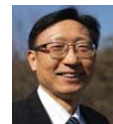
이렇게 무엇이 일정 시간 속에서 쌓여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 있는 무엇이 된다는 사실은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간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그 성격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시를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창조주께서는 그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서 구원의 경륜을 종결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무엇보다 회개할 때가 있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의 시간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몸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은 흠으로 지음을 받았고, 흠에서 난 것을 먹고 살며, 죽어서는 흠으로 돌아간다. 몸과 영혼 중 영혼이 중요하다고 어디까지 강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대가 아무리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 유틸리티스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시간적 존재요, 몸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시간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언제든 몸으로 해야 할 두어 가지 일을 지적한다. 그 하나는 모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10:24,25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한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사귄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에 모여 이루어지며, 모임, 즉 예배는 몸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한다.

둘째는 가정이다. 고린도전서 7:5은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서로가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그후에는 다시 합하라고 명한다. 그것이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몸으로 시간 속에서 사는 인간으로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 철학분과장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초기부터 기독교학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진리관을 비롯한 몇몇 논문을 썼다. 번역서로 『창조, 타락, 구속(알버트 윌터스 저)』 등이 있다.